

- 본문 : 고린도후서 12장 7~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 제목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설교자 : 이재서 목사

**· 본문 읽기****고린도후서 12:7~10**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고린도전서 15:10**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빛나게 했던 가시는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로 온다. 예를 들면 시련, 질병, 비극, 어려움, 핍박, 유혹, 삶을 억압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다. 누구나 크든 작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굽는 가시가 있게 마련이어서 항상 우리를 자극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울처럼 당신에게도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가시가 있는가? 선교주일 말씀 안에서 바울처럼 “은혜의 장갑”을 끼고 다루기 쉽지 않은 가시들을 다듬는 법을 말씀 안에서 배워보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7a) 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무엇인가? (7절/참고, 고후 12:1~6)
2.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할 때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갈라디아서 4:15; 6:11
3. 바울은 세 차례나 주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매번 거절되었다. 대신 주님께서 위로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9절)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4. “온전하여짐이라”(9b)라는 단어는 ‘완성되다’ 또는 ‘성취되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가장 약해지셨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진리로 인하여 바울이 결단한 것은 무엇인가? (10절 / 참고, 고전 1:27)
5. 바울이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사역에서 거둔 놀라운 성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기 때문이다(고전15:10). 당신도 바울처럼 외적인 시련,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함부로 ‘내 인생의 가시’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의 배우자, 자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지라도 그들은 가시가 아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바울이 의미한 ‘가시’는 육신의 질병, 정신적 충격과 같이 현세의 삶에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먼저 우리 내면을 보고, 그리고 가시 그 너머에 있는 희망, 평안, 기쁨을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라!” 이번 주간 내 신앙의 삶이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결단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 말씀기도제목**

1.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2. 해외선교 18개국 20가정과 국내선교 11개 미래자립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골방”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영적 수원이자 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선교의 달 6월을 지낼 때 선교 비전과 선교헌금의 헌신, 그리고 선교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선교교회”로서 사명과 사역을 정립하게 하옵소서.

